



인재육성 토대, 고객품질 완성 목표

기술개발 노하우 기반, 실무중심 경영

전영관 / (주)효성PU필름 대표이사

각 계열사를 통해 국내 필름 산업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효성이 지난 98년 연관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통합을 실시하면서 탄생된 (주)효성PU필름은 지난 1월 3일부로 전영관 대표이사를 맞이하면서 또 한번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주)SKC에서 시작해 15년간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에 앞장서 온 전 사장은 “효성PU 필름의 대표이사는 저에게는 큰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지난 3개월보다 더 긴 앞으로의 포부를 내보였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자가 된만큼 영업과 생산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며 도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전 사장은 세가지 경영지침을 가지고 있다.

첫째, 품질과 Quality 중심의 경영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부분은 중요시하고 있지만, 전 사장은 작업환경과 업



무방식 등 기업 내 작은 부분 하나에서부터 질을 올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술혁신의 가속화를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 번째 경영지침이 바로 전 사장이 2000년 중점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기도 한 능력있는 인재 육성이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경험을 쌓는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는 곧 기술혁신과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전 사장은 기술적인 개발과 동시에 고객품질과 연결된 경험 충족에도 적지않은 배려를 하고 있다.

즉, 생산책임자가 고객을 방문하면서 고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술관련 테마를 기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고객지향이라는 경영철학을 으뜸으로 삼고 있는 전 사장은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방침들의 토대도 결국에는 고객품질을 위한 것이라

고 설명한다.

“제가 말하는 고객품질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품질의 관리가 아니라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 포장사양 등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말합니다”라고 설명하는 전 사장은 이외에도 기능성과 공정성, 최종제품의 성능과 납기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고객품질의 범주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업무에 있어 목표지향적이고 정도와 순리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도 한 전 사장은 또한 조직은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각각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기업경영의 관건임을 확신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효성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라인 중 PE 필름 라인의 경우 97년 5월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신의 설비인만큼 성능과 정확도 등 생산 효율면에서 타사보다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전 사장은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기능성포장재의 개발에 큰 힘을 기울일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나일론 생산라인의 경우 Trifle Bobble System이라는 세계 유일의 고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필름의 모든 물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균형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효성그룹의 경우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 연구소를 설립할만큼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입니다. 필름업계에 종사하면서 기술자로 성장해 온 제가 경영자로 거듭나면서 효성PU필름의 사장직을 맡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라는 전 사장은 지나온 필름업계에서의 기억 중 PE필름업계에서 가장 후발주자였던 (주)SKC를 세계 4위 규모의 PE필름 생산업체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떠올리기도 했다.

“우리 기업은 기술의 개발과정을 지켜보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기술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려운 점인데,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어도 연구개발 기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라고 아쉬움을 전하는 전 사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무한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술자로 지나온 평생을 통해 쌓아온 기술적인 노하우와 철두철미한 기업경영을 토대로 한 전 사장의 새로운 도전이 또 하나의 성공으로 거듭날 멀지않은 그 날을 기대해 본다. ☐

윤지은 기자